

##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 이수연 충북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의 거꾸로 교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영어송’으로 영어문법 꼭잡기!

충주북여중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운 영어의 품사 개념을 3학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줄줄 읊는다. 여럿이서 똑같은 내용을 외우는 이른바 ‘떼창’도 가능하다. 품사를 다름 아닌 ‘노래’로 배웠기 때문이다.

이수연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는 직무연수를 통해 노래로 영어를 가르치는 선배 교사의 사례를 접한 뒤, 자신의 수업에도 노래를 접목했다. 주로 품사, 조동사, 관계대명사처럼 처음 배울 때 확실히 알아두지 않으면 계속 고생하는 개념, 중학교 3년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려운 개념들이 노래의 대상이 되었다. 노래의 힘은 역시나 놀라웠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노래를 통해 입으로, 몸으로 반복해 익히다 보면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

이 교사는 “노래를 활용한 기본 수업 포맷을 정해놓고, 학년에 따라 울동을 창작해보거나 협동 학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주해 지난 3년간 다양하게 시도해봤다”면서 “1학년 때 가르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서도 품사송을 잊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mailto:genie87@donga.com)

## 수업개요

교과 — 영어 학기 — 구분 없음 차시 — 2~3차시

단원 제한없음

주요 핵심성취기준 단원에따라다름

	기본 포맷	발전 포맷
수업 내용	1. 디딤 영상 바탕으로 '영어송' 노래 가사익히고 외우기 2. 가사에 맞는 율동 창작하기 3. 안무 발표회 및 평가	1. 디딤 영상으로 단원 주요 내용 학습하기 2. 모둠별로 학습 내용을 요약한 가사 창작해 노래 만들기 3. '2 Stay 2 Go'로 협동해 문제 풀기

※이 교사의 영어송을 활용한 거꾸로 교실은 학습 주제나 학년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뉜다.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중1을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을 다룰 때는 영어송을 익히면서 이에 따른 율동을 창작·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반면 중2~3을 대상으로 다소 어려운 개념을 다루는 경우 가사를 창작해 영어송을 만들어 보되, 이 과정에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예제를 협동해 풀어보는 것에 더 중점을 뒀다.

### ▼ 디딤영상

차시	1	2	3
수업	디딤영상 바탕으로 개념 학습하기	영어송 바탕으로 개념 익히기·암기하기	마무리 학습 (발표회/학습지 풀이)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해 실제 수업에 활용된 디딤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디딤 영상은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교사가 직접 녹음한 '폼사송'이다(QR코드 참조).

### [1차시] 폼사송의 가사를 맞혀라!

학습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디딤 영상만을 보고 폼사송의 가사를 맞혀보도록 한다. 디딤 영상에 등장하는 폼사송은 음성이 변조되어 있고 다소 빠르게 녹음돼, 학생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모둠별로 상의해서

가사를 추측해 본다.

모둠별로 상의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준 후에는 학습지를 나눠주고 풀어보게 한다. 학습지는 디딤 영상에 등장하는 품사송의 가사에 빈 칸을 낸 것으로, 학생들은 앞서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 칸을 채워 넣는다.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디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채워 넣는다.

### 〈품사송 학습지의 예시〉

※ 품사송의 가사를 완성하세요.

Verse1	Verse2
(이름)을 나타내는(명사) (명사)를 대신하는(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는(형용사) (움직임)을 나타내는(동사)	(동사),(형용사),(부사)를 꾸며주는(부사) (연결)을 해주는(접속사) (장소),(방향),(시간)앞에(전치사) (아)! 쉽구나!(감탄사)

학습지를 모두 완성한 후에는 모둠별로 가사를 외우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가 모둠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지정해 가사를 모두 암기했는지 확인함으로써 1차시 수업은 마무리 된다. 이처럼 품사송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 품사의 특징을 간략하게 노래로 배울 수 있다.

#### [2차시] 가사에 맞는 울동을 만들어라!

모둠별로 품사송의 울동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모둠원 각자가 품사송의 한 부분을 맡아서 가사에 꼭 맞는 울동을 만든다. 총주북여중의 경우 한 모듬이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품사송의 가사가 모두 8줄이어서 한 사람당 2줄씩 맡아서 안무를 만들었다. 각자 안무를 만든 후에는 모듬원끼리 공유해 전체 가사의 울동을 완성했다.

울동을 만들 때는 최대한 가사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와 같은 가사에선 옆에 친구와 손을 잡는 안무를 만드는 것이다. 1차시 수업을 통해 이미 품사송을 모두 외운 상황이지만, 직접 울동을 만들어보는 2차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품사송의 내용을 몸으로 한 번 더 이해하고 외우게 된다.

#### [3차시] 안무 발표회

모듬별로 완성된 안무를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다른 모듬의 발표를 보면서 안무 영역, 창작 영역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동료평가를 진행한다. 모든 모듬의 발표가 끝나면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취합해 최고의 모듬 한 곳을 뽑은 뒤, 잘한 점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해 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 🎵 ‘영어송’ 수업 포맷을 활용해 수업발전시키기

조동사,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 개념을 영어송 포맷을 활용해 보다 쉽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다. 다만 품사를 익히는 수준을 벗어나 보다 고차원의 문법 개념을 가르칠 때는 울동 창작 파트를 제외하고, 동료학습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차시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디딤 영상은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강의식 영상으로 준비한다.

### [1차시] 디딤 영상 학습하기

디딤 영상을 보고 오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디딤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울 개념의 주요 특징을 학습한다. 앞서 품사송 수업과 달리 조동사, 관계대명사, 분사 구문 등 다소 어려운 문법적 개념을 익혀야 하는 수업에서는 수업 전 디딤 영상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 기초 학습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 더욱이 학생마다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주제에 따라서는 디딤 영상만으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수업 시간에 디딤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과 개념에 대해 교사가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 좋다. 1차시 수업은 디딤 영상의 내용을 갈무리한 간단한 학습지를 풀어봄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한다.

### [2차시] 영어송 가사 만들기

디딤 영상에서 배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조동사송’과 같이 문법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영어송을 만들어 본다. 품사송과 달리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특정 동요를 고르고 그 동요의 가사를 개사해 노래를 만든다. 동요를 선정할 때는 다른 모둠 학생도 모두 알 수 있는 잘 알려진 동요를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가사를 개사할 때는 교사가 제시한 문법상의 특징(2~3가지)이 가사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만드는 것이 조건이다. 모두 완성되면, 모둠별로 만든 영어송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가장 잘 만든 모둠을 뽑아 그 가사를 학급 게시판 등에 붙여준다.

※ 관계대명사와 같이 중요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을 소재로 할 때는 아무리 조건을 달더라도 학생들에게 가사를 개사하도록 시키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해당 개념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특징을 담아 가사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이를 외우고 익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 [3차시] 학습 예제 풀이

교사는 앞서 영어송으로 만든 문법 개념을 활용한 예제를 여러 개 준비한 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모둠별로 풀어보게 한다. 모든 모둠이 다 같은 문제를 풀지는 않으며 문제는 분담해서 푼다. 1번 문제는 1조와 4조가, 2번 문제는 2조와 5조만 풀어보는 식이다. 모둠별로 1개 문제만 푸는 대신 각 모둠이 맡은 문제에 한해서는 그 모둠이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이를 해야 한다.

모둠 내 문제 풀이가 끝나면 모둠의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 교사에게 자신들의 풀이가 맞는지 중간점검을 받는다. 이 때, 같은 문제를 푼 조끼리 동시에 검사를 받는다.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모둠의 설명이 다를 경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개념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다. 문제 풀이를 잘못했던 모둠의 대표자는 자신의 모둠으로 돌아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모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모둠이 맡은 문제를 완벽히 풀이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어서 ‘2 Stay 2Go(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진행한다. 모둠원 4명 중 자신들의 모둠에서 맡은 문제를 설명할 2명은 모둠에 남아서 자신의 모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이해주고, 나머지 모둠원 2명은 다른 모둠을 돌면서 다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듣는 것. 일정 시간 후에 설명해 주는 사람과 설명을 듣는 사람의 역할을 바꿔 한 번 더 ‘2 Stay 2 Go’를 진행한다. 이 활동을 통해 교사가 준비한 모든 예제에 대한 풀이를 전체 학급 학생들이 모두 공유함으로써 수업을 마친다.

##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결과물을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수업의 한 형태이므로, 이 수업 활동 자체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울동 만들거나 가사 창작하기 활동 등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주었다.

##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수업, 고민한 결과죠!”

### Q. 수업에 노래를 접목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영어 시간을 떠올렸을 때 지겹거나 어렵다는 생각 대신 ‘오! 다음 시간 영어 수업이야?’하는 설렘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다. 지식 전달이라는 수업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직무연수를 통해 영어 수업에 노래를 접목한 선배 교사의 사례를 접하게 됐다. 내 경험을 돌이켜봐도 음악으로 배웠던 것은 쉽게 잊지 않았었는데, 노래를 통해 문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후 3년째 영어송 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로 1학년 때 배운 품사송을 잊을 법도 하건만 3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흥얼거리는 학생들을 보면 학습 효과만큼은 탁월한 듯 하다.

### Q. 영어송의 소재를 고른 기준은?

영어송의 학습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한 학기, 한 학년 모든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학생과 교사 모두 에너지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생하는 파트 위주로 소재를 골랐다. 중1의 경우 학생이 처음 접하게 되는 ‘품사’의 개념이 그런 예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단원에 걸쳐 배우게 되는 조동사나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등도 영어송 수업의 대상이 됐다.

### Q. 품사송을 직접 녹음했던데?

품사송 자체는 따로 만든 것이 아니다. 유튜브에 이미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올려두신 품사송 노래 영상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괜찮다. 다만, 나의 경우 직접 노래를 부르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성을 변조해 제공했다. 이렇게 음성변조를 함으로써 가사 빈 칸 채우기의 난도는 더 높아졌다. 한 번 들어서는 가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교사가 직접 녹음한 것이란 사실을 알아채면서 학생들이 영상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는 점이

녹음의 더 큰 효과라고 본다.

**Q. 학년, 소재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 한 이유는?**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같은 개념은 강의식으로 설명해줘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영어송 가사를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 개념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간 심화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1학년과 달리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선 울동 창작 대신 2 Stay 2 Go와 같은 동료학습 파트를 강화했다.

동료학습만으로도 어려운 개념을 소화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로간의 동료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한다. 특히 자신이 이해한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 내는 메타인지능력을 기르게 된다.

**Q. 동료학습의 또다른 효과는?**

‘2 Stay 2 Go’와 같은 동료학습에선 학생들끼리 서로 묻고, 가르쳐 주는 일련의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 사라진다. 반대로 더 잘 안다고 해서 으스대거나 잘난 척하는 일도 없어진다. 대신 잘 모르는 친구에게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자연스럽게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이 향상된다.

**Q. 제언**

2 Stay 2 Go 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학생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다소 낯설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좋다.

만약 바로 시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모둠별로 나눠서 하지 않고, 개념을 잘 알고 설명도 잘 하는 학생 5~6명을 뽑아 이들을 호스트로 내세운 후 이들에게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호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나 과정을 학급 모두가 경험해보게 한 후 다음 수업에서 모둠별 2 Stay 2 Go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이수연 / 충북 충주북여중 영어 교사